

단청문양 8천여점 디지털화 생활·산업용품 디자인 활용

우리의 5천년 역사와 맥을 함께 해온 불교문화는 분명 세계사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다. 그래서 문화적 잠재성이 큰 불교문화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런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력 아이디어 부족으로 사실상 불교문화 콘텐츠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개발을 시도했지만 불교라는 종교적 특수성과 상업성의 결여로 이미 실패를 맞은 콘텐츠도 수두룩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미래의 불교문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불교문화콘텐츠를 소개한다.

'오세암' '삼국유사' 등 애니메이션 제작 '탄이의 불교여행모험' 게임 개발중 모바일 서비스 단조로와...다양화 필요

불교문화콘텐츠 부문별 현황 (下)

캐릭터 정석규 호남대 인터넷미디어대학 교수는 지난해 2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2차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사업자로 선정돼 한국 불화(탱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국적 캐릭터로 개발중이다. 중생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보살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 그리고 보살이나 호법신의 명을 받아 직접 일을 수행하는 판관, 귀와, 사자, 야차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정 교수의 손에 의해 캐릭터화 되고 있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도 올해 불국사를 비롯해 신흥사와 해인사, 송광사 등 대표적인 관광사찰과 연계해 해당 사찰의 특성을 살린 사찰통합이미지를 활용해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추진중이다.

애니메이션 아동문화가 정채봉씨의 원작동화를 바탕으로 (주)마고21이 제작한 2D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4월 개봉된다. 앞 못보는 누이와 함께 사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따뜻한 그림구성과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종욱 위덕대 국문과 교수도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 130여편 가운데 설화의 배경이 된 지명이 확인 가능한 50여편을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군신화, 박혁거세, 연화랑 등 삼국유사와



부문에 실린 10여편의 설화들을 동화로 각색해 애니메이션작업을 마친 상태며 완성되면 불교유치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게임 게임업체 조이온이 뮤지컬 '해상왕 장보고'를 기반으로

제작한 PC게임 '해상의 빛, 장보고'를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영화, 소설, TV드라마 등이 게임으로 제작돼 인기를 끌자 뮤지컬을 게임으로 개발한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다. PC게임 '해상의 빛, 장보고'는 3차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역사상 실존 인물들의 업적과 복식, 건축양식 등을 고증을 통해 재현할 예정이어서 교육적 효과도 높을 전망이다.

또 적경스님(봉안사 주지)이 현재 불교 게임 '탄이의 불교 여행모험'을 (주)세이생명과학시스템과 함께 제작 중이다. '탄

이의 불교 여행 모험'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모습이 없다. 마치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무예와 검법의 재미까지 가미시켰다. 스님은 앞으로 <법화경>과 <화엄경>도 게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캐릭터 개발 등 디자인 전문회사인 투알앤디는 현대적 시각으로 고려시대의 국가의례인 '팔관회'를 게임으로 콘텐츠화하고 있다. 정치와 외교, 문화와 종교, 무역 등 3가지 관점에서의 특성을 시나리오화할 예정이다. 6월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모바일 음성정보 서비스업체 스타링에서 현재 '반야심경'과 '천수경' 등의 독경소리와 '산화기' 등의 찬불가를 휴대폰의 통화연결음에 서비스하고 있다. 또 성악가 정을스님의 '노래하는 기도' 등도 함께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요자층이 많지 않아 레퍼토리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화에 있는 지국천왕의 원형을 살린 캐릭터(사진위)와 만봉스님의 단청문양을 버스외양디자인에 활용한 사례(사진 아래).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Friendly Samsung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늘 가까이 있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삼성카드

365일 24시간 열린 서비스 www.samsungcard.co.kr • 불교 도 문화 1588-8700 • 전화부 다듬 1588-8630 • 원화본 발송 삼성카드 홈페이지

SAMSUNG 삼성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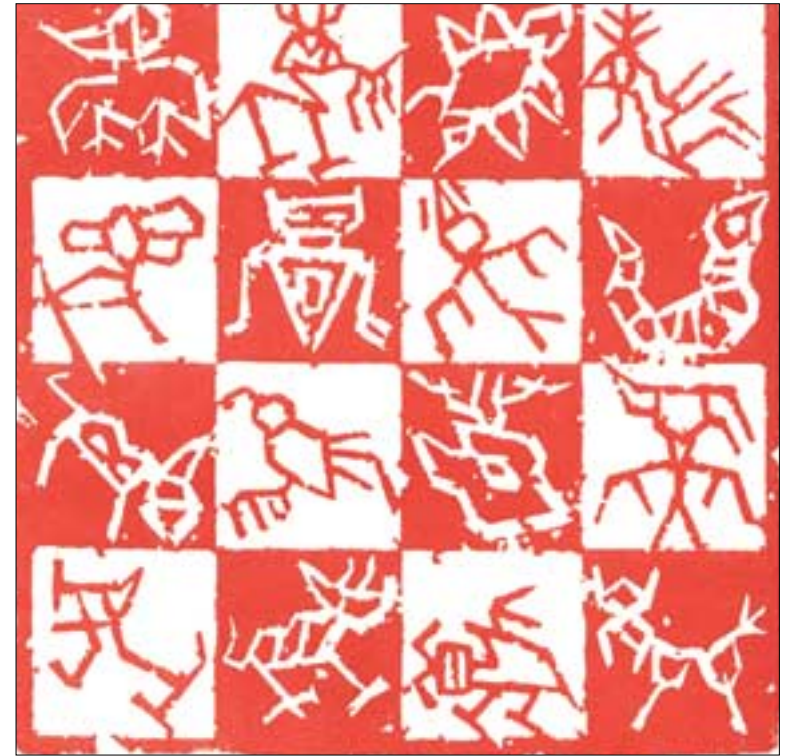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불자들이 늘 외우는 <반야심경>을 돌에 새긴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40여년 동안 전각가로 활동해온 심무용씨가 30일까지 부산 초량동 프랑스문화원에서 여는 전각전시회가 바로 그것. 특히 <반야심경>의 경구를 64개의 돌에 이어 새긴 작품이 눈에 띈다.

갑골문·전서·금석문 등 글씨체 옛스럽고 다양

각기 다른 도장 모양과 글씨체를 구사해 흥미롭다. 작품마다 느껴지는 인고의 흔적때문일까. 돌에 새겨진 작가의 종교적 심상까지 헤아려 보게 된다.

이번 작품에서는 우선 선(禪)적인 문구가 많다. '월하목계명(月下木鷄鳴)', 달빛 아래서 나무 닭이 운다는 뜻. 문구는 불교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추사 김정희의 다시(茶詩)와 이태백의 시, '도법자연(道法自然)' 같은 도가적 풍모의 문구, '운고이지신(溫古而知新)' 같은 <논어>의 구절도 선보였다. 서예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전각의



▷돌에 만다라 문양을 형상화 한 심무용씨의 '전각만다라'.

이색전시 돌에 새긴 '반야심경'

심무용씨 부산 佛문화원서 전각展

글씨체는 다양하며 옛스럽다. 갑골문 전서 금석문 등으로 그림의 맛이 담긴 고졸한 아취의 글씨들이다. 거기에는

가 돌에 새겼기에 나무와는 또 다른 투박하고 강인한 맛이 느껴진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총 30여점. 전시 기간 중 오후 2-7시에는 작가가 상주하며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준다. (051)465-0306. 김주일기자



▷10·27법년이 일어난지 23년만에 TV를 통해 법년이 일어난 발단과 내막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프로에서는 지난 1986년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2천여 스님들이 모여 10·27법년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습도 방영된다.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정권이 불교계 정화와 용공분자, 범법 행위자 색출을 명분으로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 주요사찰에 난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 스님과 재가불자 1백53명을 연행했던 '10.27 법년'의 진실을 규명해보는 프로그램이 TV로 방영된다.

MBC TV의 시사 프로그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16일 밤 11시 30

'10·27법년' 진상은 이렇다

MBC-TV, 16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방영

분 '10·27 법년-45계획의 진실' 편을 방송한다. 이 프로에서는 '10·27 법년'을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유린행위로 규정하고, 의혹 속에 갇힌 10·27 법년의 진실 규명이 새로운 법년의 발단과 내막이 속속들이 파헤쳐진다. 또 법년에 대한 불교계와

정부의 입장도 들여보며 진상규명 운동을 하는 불교계의 모습도 소개한다. "실증적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가해자들 역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채환규 PD는 "이 프로그램이 의혹 속에 갇힌 10·27 법년의 진실 규명이 새로운 법년의 발단과 내막이 속속들이 파헤쳐진다. 또 법년에 대한 불교계와

여수령 기자